

세제 첨가제, 아시아 · 중남미 부상

중국, 샴푸 생산기업 급증 ... 중남미는 비누용 향료 소비강세 전망

최근 중국 및 인디아 등 개발도상국이 고급 세제 포플레이션 수요가 늘어남과 동시에 세제 성장 또한 급성장하고 있어 세계 세제 첨가제 시장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세제 첨가제에는 살균제(Biocide), 향료(Fragrance) 및 광학표백제(Optical Brightener) 등이 있는데, 향료 생산기업들은 중국 및 인디아 등 신흥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International Flavors & Fragrances(IFF)는 신흥국에서 자사의 세제 첨가제 사업이 연평균 약 4% 성장하고 있어 북미 및 서유럽에 비해 2배 이상의 빠른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Givaudan은 현지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국 및 인디아 현지 인력 트레이닝에 나섰다. 신흥시장에서는 악취를 제거해주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최대 관건인 반면, 개도국에서는 특별한 향을 오래 지속시켜주는 기술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다.

Arch Personal Care는 중국에서 샴푸 생산기업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인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듬방지 샴푸 수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Arch는 2000년 Brooks Industries의 퍼스널 케어 중가제품 사업을 인수해 특수 Biopolymer, Protein, Botanical 및 Liposome도 생산하고 있다.

Rohm & Haas는 새로 개발한 Neolone 950 방부제(Preservative)에 대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Neolone 950은 Zinc Pyrithione계 비듬방지 샴푸 및 강산성 액체세제 등 다양한 퍼스널 케어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중남미 세제 첨가제 시장 또한 향료 공급기업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세제 첨가제 수요기업들은 향기 강한 비누와 세제를 선호하고 있어 향료소비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숙기에 접어든 북미 및 서유럽 시장에서는 첨가제 생산기업들이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통합추세가 확산되면서 첨가제 잠재 수요기업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최근 몇몇 수요기업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해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Freedonia Group에 따르면, 미국의 비누 및 세제용 향료 수요는 연평균 약 2.4%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시장성숙 외에도 수요기업들이 무향 또는 무향료 제품을 선호하면서 향료 수요가 점차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미 및 서유럽 시장은 Wal-Mart와 같은 대형 할인점들이 자사의 브랜드 세제제품을 개발해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잠재 수요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제 첨가제 공급기업들은 또한 수요기업과 합작해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Ciba는 표백제, 광학표백제, Rheology Modifier 및 Thickener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수요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수익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Ciba는 현재 아시아의 한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세제에 쉽게 결합할 수 있는 표백제 Granular Form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Excited State Quencher>로 알려진 안정제를 출시했는데, 병 속에 저장된 세제가 빛에 의해 분해되는 것으로 방지해준다.

<화학저널 2004/06/03>